

羅州鄭氏大同譜序

粵昔五胡之亂中原也。衣冠이離散하고譜牒이不明하야以致易姓冒虜之變하니噫라今天下之亂이不啻五胡比也라衣冠士大夫之族修譜之役이容可已乎아我羅州鄭氏一始譜于顯宗辛亥而其後續修者屢矣라往甲戌之修譜에族大父遇琪氏極致意于四派之同譜나然아나以吾指諭公長派之不應으로至今恨之러니今此大同譜之議之起也에族叔斗冕氏懇々說得하야以合四派하니其規依於辛亥初譜라고繼而併豎五世壇碑하야以破疑信하니此豈非祖先英靈이所以默佑于冥冥之中耶아或曰大同譜事大而難成이요浩煩而有殺雜之弊하야莫如派譜之事小而易成이요簡潔而有尊重之意也나不佞이應之曰雖大同譜라고克遵前人之規例則未有殺雜之弊넌各盡自家之義務則刊役之成이亦不難也오若不遵前人之規例하고不盡自家之義務則雖派譜나弊易生之而刊役이隨而不易也라然則事之難易와弊之有無이不可以大小譜而論之也明矣라以不佞으로觀之컨대大譜一尤爲尊重者有之니將言之可乎아自子孫看之면各有分派之祖라然아나自始祖看之면莫非一祖之孫也라苟能盡收并載于一譜之中이면如一祖之子孫이同居一室하야昕夕唯諾乎則孝悌敦睦之心이自然生矣요若各分其祖하야各修其譜넌如一祖之子孫이各居異鄉하야耳目之不相及焉則其不爲路人之視者鮮矣라大同譜所以爲尊重者此也요而吾姓之今修譜一其意亦在此也라但默軒公派一部와直長公三子諱諱祖派와直長公三弟諱閔派一部之不入은實有所憾耳라然아나亦以勢不得已하니第待異日之續修可也로나刊役이將畢에門議一俾不佞으로置一言子卷首하니無乃爲僭妄乎아世德之隆과源流之長은舊序詳之기로不復疊說하고略書其與或人言者와及有所感于中者하야以之塞責하노니豈曰文乎哉아

歲戊午清和節 諭指公二十二世孫炳華序

甲戌舊譜序

詩曰無念爾祖_아 聿修厥德_이 蓋嘗論之_면 厥德之修莫如修譜_라 夫譜_는 明昭穆_{하고} 著世代_니 著則遠可不忘_{이요} 昭穆則序可不紊_{이라} 序不紊而遠不忘則民德歸厚而厥德之修不期然而然矣_라 嗚呼_라 惟我文靖公丙鹿之季_에 道學冠世_{하야} 官至修文殿太學士_{하니} 華人稱以海東夫子_라 迄我 聖朝_에 名公巨卿_이 赫然相承_{하야} 蔚爲望族_{이라} 挽近以來_로 家聲_이 雖遜於古_나 子孫之蕃_은 視古十百_{하니} 安知文靖先祖積慶累仁之功_이 洋溢至此耶_아 今以後承相視則雖若秦楚而甚踈且遠_{이요} 自文靖公視之則均是子孫而一氣相連若_{하야} 徒知今之秦楚是遠_{하고} 不知昔之本乎一氣者_면 甚忘文靖之祖也_라 且夫世幻滄桑_{하야} 人幾禽獸而今者同室_이 不知將歸於路人則吾於吾譜_에 可得已乎_아 不得不以八域吾宗_{으로} 若萬目之網_{이요} 百川於海_라 舉歸吾譜_{하니} 身雖千里_나 宛在一室_{이니} 講其幾世幾代_{하야} 明其某派某宗然後_에 敦睦之風_이 可作_{이요} 孝悌之心_이 可生而雖涉此險世_나 可保無虞矣_라 故自不揆人微力淺_{하고} 忝在讎校之末_{하야} 敢以巨役_{으로} 始於昨歲而幸賴僉宗齊聲協力_{하야} 不數年_에 功告訖_{하니} 可謂大慶_{이라} 然_{이나} 所可欠者_은 若聞慶濟州之宗_이 以世阻路左_로 終是落落難合_{하니} 闕湖諸宗_이 或入於斯_{하야} 或有闕漏者多_{하고} 綿城之宗_은 又自譜而不與吾大同_{하니} 寔與箕宗_{으로} 不無二議_라 竊惟否泰在天_{하고} 分合_이 有時_{하니} 以待後日_이 亦可乎_아 大抵天下圓美者小_{하고} 不足者多_는 亦勢也_라 何哉_오 惟願僉宗_은 勿以分合_{으로} 爲嫌_{하야} 無謂吾譜已成_이 講吾敦睦_{하미} 勉吾孝悌_{하야} 無忘吾文靖公積慶累仁之功則異日椒聊之益蕃_과 家聲之復古——安知不基於斯乎_아 是譜也以和爲貴_{하야} 頗有乖於舊例_{하니}

要之

컨덴

其於收族之道

에

得之矣

役已完

에

不可無一語故

로

只舉今日所以譜之端

하야

及詩無念爾祖之義而勉吾宗族

이

終始旋力者

는

族兄遇琳

과

族侄正冕與炳華也

과

時甲戌陽復月下浣逸軒公十二世孫遇善謹書

創刊辭

悠久한 歷史속에 우리氏族의 흐름이 於焉間 八百五十餘年 오늘도 來日도 歲月은 자꾸만 흘러간다 오늘의 現實이 來日의 過去로 다시 옛것으로 도라간다 數 많은 先賢들이 歲月과 함께 묻혀가고 다시 새로운 時代의 人間이 形成되곤 하여 歷史의 흐름속에 우리 宗族은 오늘에 이른 것이다 여기 조그마한 人間의 意志와 한 血族의 모임이 集大成하여 한編의 宗族의 大典을 이룩하니 이것이 卽 丁巳大同譜인 것이다

이 大同譜가 曠闊한 廣野에 그 첫발을 디딘지 三年南으로는 우리나라 最南端 齋洲에서 北으로는 江原道에 이르까지 우리 鄭氏가 사는곳이라면 발이 달이 않은곳이 없고 事蹟이 있는 곳이라면 國立圖書館을 비롯 藏書閣等 이르지 않은 곳이 없다 日行千里하여 낯선 땅에서 하룻밤을 새울때 많은 懷疑에 輾轉不寐한적이 몇번 이였는가 果然 大同譜가 이루어질 것인가 矢在弦上하니 不得不發이라 天佑神助하고 英明하신 祖上任의 도우심인가 우리 大同譜가 마침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오랜 歲月과 수많은 努力으로 이룩된 이 몇卷의 冊이 이제 어떠한 값을 가지고 子孫들의게 傳하여질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祖宗의 文獻에 새로운 價值觀을 發見해야 하며 새로운 正義를 내려야 한다

西紀一六四五年 李朝 仁祖二三年에 先人珪氏가 乙酉草譜를 創刊하시니 우리 羅州 鄭氏族譜의 創始인 것이다

다음 西紀一六七一年 李朝 顯宗十二年에 進士 彥復氏 先人께서 辛亥譜를 發刊
 하시였고 西紀一七五三年 英祖二十九年 癸酉譜를 元浩氏 先人께서 刊行하시였고
 西紀一九四三年 甲戌에 來浩氏先人이 甲戌譜를 發刊하려다 日帝侵略時 彈壓으로
 苦楚를 격으며 強行하였으나 譜冊을 押收 當하고 五十餘帙 存在한다
 以上 四等譜를 發刊하신 先人들이 先業에 게친 業績은 實로 至大한 것으로
 이로 하여금 우리 宗族은 祖上의 系譜를 바르게 간직하고 宗族間에 昭穆을
 正當히게 認識하기에 이른 것이다 萬若 先人들의 創譜 又是 累等譜가 없었던
 들 우리는 더 많은 祖上의 事蹟을 失傳했을 것이며 오늘의 大同譜는 많은 作
 爲와 粗雜이 없을수 없다 生覺하면 實로 고마운 일이다 우리는 先賢들의 心
 血을 傾注하신 偉業의 德에 先事에 對한 하나의 固定觀念을 가지고 祖宗文獻을
 새로운 意識아래 開發해 나갈수 있는 것이다
 乙酉譜 以來 우리 羅州鄭氏는 많은 族譜를 編纂해 왔다 辛巳譜 庚戌譜 乙未譜
 等은 各派에서 收錄한 派譜이며 各其 저마다 數編의 派譜를 所藏하고 있다
 個中에는 譜規의 正當性を 喪失하고 刊行의 大義를 忘却하여 祖宗의 名分을
 잃은 刊行物이 許多하며 荒唐無稽한 九世假錄等 內容은 宗族의 이름으로 廢
 棄되어야 마땅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모—든 先業은 祖宗의 傳統과 이를 받드는 子孫의 名分아래 이루어 진다 爲先
 이란 無形의 意識속에서 名分없이 무엇을 이룩할 것인가 우리는 行動하기 以前

에 먼저 그 名分을 찾아야 한다 祖上에 對한 名分은 祖宗文物을 받들어 간직하는데서 부터 始作한다 歷代 大同譜를 보면 各其 當時 祖宗文物을 代表하여 先業의 方向을 提示하였다 모든 宗族의 이름으로 刊行되는 今般 大同譜는 今世의 宗族文獻의 總結品이며 祖宗文物의 現代的인 方向을 指向하는 大宗典이다 이 族譜는 宗族의 이름아래 歷代 大同譜의 權節을 繼承하는 者로 三百三十餘年을 내려오며 이어온 歷代編譜의 舊態를 完全히 벗어나 새로운 形態와 새로운 意識아래 編纂코저 先賢들의 行狀과 狀錄을 後人이 解得하기 容易토록 翻譯할 豫定이었으나 財政上 如意치 못하였으며 仔細히 살펴보면 옛것의 새로운 表現이 새로운 것에 옛을 繼承하는 조심스러운 表現이 溫古知新하는 現代的良識아래 역어저 있는 것이다 이 大同譜가 成典되기 까지 수많은 宗族이 이에 參與하여 各其 所任을 다 하였고 執行部 常任 咸平月也 炳華氏를 비롯 羅州老安 東會氏 務安西湖 永春等 三名이 이에 從事한지 二年餘 勞苦에 對하여 實로 感謝를 드리며 한便 全北高敞 叅奉公派 一部와 京畿道利川夫鉢思義堂公派와 羅州校洞 克仁派 一部와 和順鴨谷 忠順衛公派 一部에 對하여는 數三次 合譜를 勸諭 說得하였으나 自派內의 事緣으로 合譜를 하지 못함을 大端히 遺憾으로 思科되는 바이다 所期의 內容을 고루 갖추지 못하고 이 冊을 내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에게는 恒常時間과 經營의 制限이 되어 따른다 어떠한 形態든 우리 大同譜는

이 時点에서 世上에 나와야 한다는 絶對的인 命題 아래 最善을 다한 冊이고
 보면 그런대로 現存族譜 史上 最先驅의 것임을 自負하고 싶다 先賢의 古典文
 獻을 빠짐없이 거이 總網羅했다 이는 읽기보다 于先 保存을 目的으로 했다
 한 狀의 先祖事實 寫眞을 얻기 爲하야 千里를 驅馳하였다 우리 世譜를 보다
 豐饒한 祖上の 文獻으로 뒷바침 하기 爲해서다 가장 어려운 것은 宗事의 執
 筆일것 같다 上古編 中古編 現代篇을 時間을 두고 充分히 研究創作하야 唯一한
 現代版 譜學으로 祖宗文獻을 裝飾코저 하였으나 經營에 쫓기고 時間에 쫓기며
 上古篇에서 그치고 만 것이다 萬不得已함을 理解하실줄 믿는다
 人類는 成長發展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大同譜는 充分한 餘韻을 남긴체 그만
 出版해야 한다 이 한 篇의 祖宗大典을 삼가 祖先의 靈前에 올니오니 祖宗
 大業에 先靈의 加護있으시기를 비는 바이다

丁巳一九七七年 月 日

跋

恭惟我鄭氏修譜_가

始而有

顯宗辛亥_{하고}

嗣後而辛巳癸酉_{하니}

即舊譜是已_라

若甲戌之

修_는

遽爲島夷所恟_{하야}

存者幾稀_{하니}

不勝慨嘆而今日之速成_은

族議詢同而然耳_라

以甲

戌先德之志_로

收今日諸宗之議_{하야}

葺單成編_{하니}

豈非紹述之盛意乎_아

人家修譜_에

以敦

親叙倫_{으로}

爲第一義_라

敦睦之誼_를

行乎譜前_{하면}

雖無譜_{라도}

譜已在心_{하니}

奚汲汲修譜

爲哉_{리오}

惟我同宗_은

親已敦矣_{하네}

族已叙矣_{하야}

和翁之情_은

已行於修譜之前_{이면}

今其

立宗法厚風俗_이

孰有大於此者_{리오}

第念事巨力綿而倡之者誰_며

發議者誰_오

始於丙辰秋

_{하야}

任員諸宗氏_가

實主張之_{하야}

不過二個星霜而大譜順成_{하니}

此固所以先祖創始之心_{으로}

今日速成者_는

僉宗後援用力勤苦也

且有未盡底意_{하니}

默軒公派一部_와

思義堂公派_와

忠順衛公派一部_와

校洞派一部_가

不八統攝_{하니}

惜其廣蒐未能也_라

然_{이나}

修述_이靡不連

續而續修有時則後日之合編_은

宜有其日矣_라

不佞_이

猥忝相役之左_{하야}

譜法_은

雖未能專

義而至若規例_는

一遵舊例_{하야}

子下系子_{하니}

昭穆則明矣_라

願僉宗_은

以時恕我_{하야}

惇叙

親親之誼厚矣云則感幸何如_오

時戊午三月下浣_에

逸軒公十三世孫海勉謹書

跋

此는 維吾羅州鄭氏大同譜也다 夫修譜之義는 在於收宗族하며 明派系하고 期敦睦하며 正

風俗한이니 此一族之大盛事也로다 水有千派萬支之流나 其源則一也니 歸海而相逢하고 樹

有千枝萬葉之繁이나 厥根則一也니 落葉而歸根하고 人有百子千孫之衆이나 其祖則同이니

修譜而團合하나니 此天地大自然之法則也다 背祖忘本者는 何足論也리오 竊惟吾鄭이 自得

姓以來로 托根於麗中하니 雪齋文靖公先祖를 爲始하야 各鄉碩輔와 勳忠科甲이여 文章孝

烈이 代不乏絕하야 既載於國乘邑誌三綱錄하니 所謂錦城館之大樑이오 東方顯族일을 自他

가 共認하는바 至于近代하야는 不幸門祚가 不振하니 惜哉로다 盛門孤族之嘆이 不無와 噫

라 惟獨大護軍公派後仍之衰微는 一口難說이라 謹按舊譜則錯誤와 漏落이 不少하니 是納

單者之不忠耶아 不然이면 編輯者之過耶아 去二十餘年前乙未春에 花樹會를 創設하고 累

此修譜委員會를 組織하고 銳意推進中再昨丙辰春에 門議가 詢同하여 大同修譜를 決議

하야 曰今譜를 正本으로 規定하고 舊譜는 參考에供할것이며 最先務가 誤謬을 是正키로한바

一無是正하고 舊態依然하야 古如是今如是하니 可勝嘆哉로다 綾和順長興長城鎮安其他京鄉

各地에 相當數의 宗親이 布列하였으나 不知去處라 必然付于他姓않이면 他派하였으리로다 又

況土石之宗은 咸羅咫尺之間에시도 終是不知歸根하니 奈何리오 吾派譜分布圖를 謹察하면

繼承者는 百不二三이오 失蹤者는 十常八九로다 失孫祖上之痛嘆이 幾何며 爲人後者之幸

福이 幾何오 易祖忘本者이 强要歡迎乎아 甘受蔑視乎아 抑何心情고 後日地下相逢에

何面目으로 待罪於祖上乎아 口碑는 千載不泐하리니 一脉의 良心苛責은 不無하리라 右는

羅州鄭氏大同譜跋文

一〇

吾派의

狀況을

慨嘆

한 나머지

不顧廉恥

하고

須多橫說

하였으니

僉宗은

恕諒焉

하시오

惟願同

譜之人은

相與景仰祖先之德望

하고

勸勉後仍之發展

하며

親益親

하고

踈不踈

하여

永久敦睦

하면

豈不美哉

리오

僉宗은

勉之勿替

하소서

相是役也

에

最賢勞者

는

族祖月溪在九氏

와

族

叔晚悟炳華氏也

로다

不肖猥忝校正之役

하여

雖不文이나

不可無卷尾一言之所感故

로

略記

如右焉

하고

繼之詩曰

大同和氣滿春城

好叙天倫譜事成

巷柳園桃培福地

龍研玉帶爭光晶

胸襟披歷真情發

敦睦相期美德生

莫道吾宗今寂寞

不多時日振新聲

檀紀四三一年戊午春

大護軍公二十三代孫

恒衍

謹跋

跋

譜族而敦睦_은 修譜家之常情耳_라 故_로 蘇氏編其譜曰觀吾譜者孝悌之心_이 油然而生矣_라 然

이나 自親親而至祖免_{하야} 世愈遠而族愈大_{하고} 門戶繁而源派分_{하야} 至或累十世而不相知_{하고}

又或數三世而不相見_{하야} 甚至於如越視秦_{하야} 瘠夫如是則孝悌之心_이 何自而生_{이며} 敦睦

之義安可保乎_아 竊惟我鄭氏_는 湖南巨族_{이라} 自勝朝文靖公雪齋先生四派後裔_로 傳派流

枝裂於八域者其麗不億而大同之役_이 今至五次而世變路異_{하야} 不能同串於一冊之中_은 勢

固然矣_라 余叅譜役之末_{하야} 究想其吾派由來則 惟我十一世祖滄洲公與慶源公父子一忠勳

偉節_이 載在國乘野史而后孫_이 零替_{하야} 終未大闡_{하니} 實爲千秋之茹恨也_라 今此大譜時_에

舍弟吉會一嘗慨然於此_{하야} 探蒐其慶源先祖之遺蹟與蠹文_{하야} 詳譯其偉勳之顛末_{하야} 照鑑

於後世_{하니} 此非慶源先祖默佑之英靈耶_아 惟吾派諸宗_은 克繼祖先之忠孝_{하고} 克法祖先之

懿範_{하야} 頌而傳之_{하고} 勉而行之則吾門之厚蔭餘祿_이 尙有餘而前進_{하야} 數萬世昌大無窮

也夫_느 勉旃勉旃_{이어다}

歲戊午三月既望 慶源公十世孫東會謹撰

跋

維我譜之大同_은 羅州鄭氏族之譜而以文靖公雪齋先生_{으로} 爲中祖者也_라 蓋自甲戌大同以

後_로 既過半百星霜而不修_하니 比於三十年一譜之例則以憂黃魯之者不可畏乎_아 夫木_은 根

幹_이 潤厚_하야 千枝萬葉_이 暢繁_이면 根幹_이 衰瘦_하야 豈可暢達乎云而況聖祖之盛德厚蔭

이 豈不永垂於千載乎_아 千載後裔千萬而又譜於一編之中_하니 孰不謂盛事歟_아 此倭敵_이

收跡_에 槿域_이 兩分_하니 嗚呼_아 長湍封塋_이 省掃不能_하야 於是_에 始望祀于侍中洞胎墟

하_고 及而各派宗鄉_하고 至務安沙川_하야 宗鄉門議萌動_하야 再三熟議_에 歸於一_하니 靡有晚

時之嘆_{이나} 豈非保佑歟_아 始經於丙辰秋七月_하야 任員幹事_와 及十八個指針_을 定焉_하야

以受任諸氏之誠_{으로} 補甲戌之小隙_하야 東勸西說_에 賢明諸宗_이 至應_이 當於實務之族

弟在九與族侄炳華氏_로 延延二個年_하야 晝宵賢勞_에 大事告功焉_아 但有所惜者_는 默軒

公一部不同_{이나} 離會分合盛衰來往_는 天理亦然人乎_아 如今念祖睦族之心_이 永續于來日

則無缺之日_이 必有近矣 別有慷慨者_는 去春_에 陰平郡夫人安氏之墓事而依於口傳鄭陵

洞之說_하야 以族祖邦會之誠_{으로} 豎碑于現榮山浦邑基洞古墳_하니 是則吾族之大幸_이요 非則

吾史之大誤世_라 伏願僉宗_은 物文之確證_{으로} 廣搜細探_하야 以現存者之誤_로 上無辱於先

代_하고 下無惑於來世爾_라

戊午春正月初尙書公二十一世孫燉勉謹書

羅州鄭氏大同譜卷之一 上系

一世

始祖鄭諧

追封軍器監

二世

子宗產

追封禮賓卿

三世

子松壽

貢進士文科行銀青光祿大夫樞密院副使配安義郡夫人鄭氏內殿崇班瑄女

四世

子可臣

初諱之興이요字之獻之요號之雪齋요又號之無溫堂이요

高麗高宗甲午一二三四

年에生于羅州洞江面侍中洞하야高宗朝에登第하야累歷華要하고官至嘉議大夫翰林學士壁上三韓三重大臣守司空都僉議中贊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上將軍判典理文翰書事世子師하다身爲家宰이行止畧如書生하니朝野一相望太平이카 嘗撰秋金鏡錄하고陪世子하야入中國하야陞金紫光祿大夫하고及還에賜金鞍金帶白馬龍硯하야以是로洞名이始焉이카

忠烈王二十四年戊戌六

月四日卒하시니國人이驚悼하 謚는文靖

이요事見麗史하다

禮葬于長湍郡江東面

鄭陵洞卯坐原이요

今璉川郡旺澄面基谷

五世

子

天台宗禪寺名遷俗

子倬

宰臣公派 按東文選하니公이罷安東하고移任晉州時에 有詩曰五月에催裝赴永嘉하니晉陽歸路에已黃花하 宦遊南北에成何事오從此로歸田學種菰하

子倅

大護軍

配清州郡夫人鄭氏章敬公諧의女요 尚書僉의孫이요 正議大夫顯의曾孫이요中郎將克卿玄孫이요文貞公扶寧金坵外孫이요按清州鄭氏之譜追錄

子

曹溪宗大禪師名景平

子倌

文科奉常大夫行開城少尹 贈資憲大夫吏曹判書

忠烈丁丑一二五五年生

六世

子弘振

下2

子洪義

下3

子洪信

同

子文振

同